■ 민족문화연구 제98호(2023.0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17-143.
http://doi.org/10.17948/kcs.2023..98.117

【 특집 : 담정 김려의 문학과 그의 시대 】

『담정총서(薝庭叢書)』 소재 전(傳) 문학에 대하여*

홍진옥(洪鎭玉)**

목 차

1. 서론
2. 『담정총서』 소재 전(傳)의 경향성
3. 심층적 인간 이해와 시대적 고민의 표출: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고는 지금까지 개별적, 혹은 작가별로 연구되었던 『담정총서』 소재 전(傳) 작품을 보다 폭넓은 의미망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로써 담정 그룹의 문학적 경향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작품 전체를 주제별로 유형화한 뒤 작가 의식 및 서술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충효열의 유교적 덕목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하층 신분의 인물들을 조명한 작품들에서는 유교 이념을 강화하기보다는 입전 인물을 하나의 개성적 인물로 창출해내고, 논평부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기한 점에서 기존의 작품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기인과 이인을 입전한 작품의 경우, 김조순은 호기(好奇) 취향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높은 서사성과 흥미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김려는 이들을 '회재불우(懷才不遇)'의 한 유형으로서 방달한 삶을 사는 은자(隱者)서 바라보며 이러한 인물군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사회에 대한 고발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옥의 경우 이인에 대한 관심과 현실에 대한 부정과 반발 등의 면모를 보여주는 절충적 모습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당대 문화와

* 이 논문은 '담정, 김려 문학과 그의 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제3회 국립한국문학관 정기학술대회(2022년 10월 22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본고의 방향과 서술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신 당시 토론자 및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생동하는 인간 군상이 핍진하게 반영되어 있는 작품군도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서는 당대의 풍속 관련하여 '이익[利]'과 '속임수[騙]'의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되면서 신뢰와 의리라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강조하였고, 이 외에 바둑 고수나 가객(歌客) 등 조선 후기에 새롭게 산생된 인물들의 삶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조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담정총서』 소재의 전(傳) 작품들은 사회적으로 고착된, 혹은 관념화된 모든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관성적 목소리를 거부하고, 인간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심층적 이해 및 사회적 고민을 다각도로 담아냄으로써 조선 후기의 문화 지형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냈다는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담정총서(薝庭叢書)』, 김려(金鑢), 김선(金鐥), 김조순(金祖淳), 이옥(李鈺), 전(傳).

1. 서론

조선 후기는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전반에서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혁신적 변화들이 이루어진 시기로 기억되는바, 문학의 영역 역시 정통 성리학적 이념을 강력하게 고수했던 기존의 경향에서 벗어나 한 가지로 틀 짓기 어려운 다기한 흐름을 보였다는 사실은 이제 하나의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조선 후기의 문학적 특징을 논의하는 데에는 주제·소재적 접근법, 형식·문체 분석의 접근법, 장르적 접근법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어 왔는데, 문학 동인 혹은 문학 그룹으로 유형화하여 이들의 사상과 의식이 어떻게 문학 작품에 공유되었으며 나아가 문학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지녔는지를 분석하는 방법 역시 유효하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북학파(北學派), 여항(閭巷) 문인 및 여러 시사(詩社) 등의 문학에 대한 수많은 연구 업적들이 축적되었다.

그 가운데 이른바 '담정(薝庭) 그룹' 역시 조선 후기 문학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담정 그룹은 담정(薝庭) 김려(金鑢, 1766-1821)가 자신을 포함한 19인의 시문 47종을 수습·편찬하여 34권 17책으로 엮은 『담정총서(薝庭叢書)』에 작품이 수록된 작가군을 가리키는 편의상의 명칭이다.[1] 이들 그룹은 조선 후기의 다양한 문학적 흐름 속에서도 개성적 문학 세계를 뚜렷하게 펼쳐낸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 이미 지적되었듯 이들 문인의 내적 연결망은 다른 문학 동인들에 비해 다소 느슨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2] 이 그룹은 편찬자인 김려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직접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분이 전혀 없는 인물도 한 사람 포함되어 있다.[3] 그리하여 이들의 문학 노선이 동일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거나, 정치적・학적 개념이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처럼 한 가지 유형으로 구획되지 않는, 혹은 구획될 수 없다는 특성은 담정 그룹이 조선 후기의 문학적 흐름 가운데 특정한 어느 한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당대의 풍부한 문학적 경향을 두루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고는 『담정총서』에 실린 전(傳)에 주목하여 작품의 특징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담정총서』에는 적지 않은 수의 전(傳) 작품이 실려 있다. 전은 한문학의 정통 장르로서 오랜 연원을 지닌 만큼 전 장르가 내부 속성을 변화시키면서 발전해 간 모습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조선 후기의 문학적 흐름을 일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담정총서』에 작품이 실린 19인 가운데 전(傳)을 창작한 작가는 김려, 김선, 김조순, 이옥 등 네 사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김선의 작품은 한 편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김선은 김려의 아우로서 형의 굴곡진 생애를 함께하며 평생을 돈독하게 지냈고, 김조순은 젊은 시절부터 생을 마감하기까지 김려와 절친하게 지내면서 문학적으로 교유하고 정신적・경제적으로도 후원하였으며, 이옥의 경우 정치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소외되었던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그의 작품을 이해하였던 김려를 통해 후대에 작품이 전해질 수 있었다. 요컨대 담정 그룹에서 위의 네 사람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1) 대부분의 논저들에서 『담정총서』에 작품이 수록된 작가를 16인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東遊亂稿』(권34)에는 이제은뿐만 아니라 李敏行(이우신의 子), 李尙信(이노원의 子), 金度淳의 작품이 함께 실려 있어 정확히는 19인이다.

2) 박준원, 「『담정총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4, 42-47면; 홍진옥, 「담정 김려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1, 224면.

3) 兒庵 惠藏의 경우 김려와 전혀 교분이 없으나 金正喜로부터 그의 시문을 얻어 『담정총서』에 작품이 수록되었다.

그룹의 개성적인 문학 성향을 잘 보여주는 핵심 인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담정총서』소재 전 작품은 적지 않은 연구들에서 분석되거나 언급되었다. 크게 전 장르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장르 문법을 해명하고 개별 작품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입증한 연구,[4] 작가론의 한 방법론으로서 전 작품에 집중하여 논의한 연구,[5] 이외의 다양한 세부적 주제로 접근하여 작품이 함의하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형식적 특징을 보다 정치하게 논증한 연구[6]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개별 작품들의 다양한 면모가 충실히 밝혀지고 나아가 작가의 문학 세계가 종합적으로 논의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였다.

본고는 선행 연구의 논의를 충실히 수용하면서 지금까지 작품별, 혹은 작가별로 연구되었던『담정총서』소재의 인물전 작품을 폭넓은 시각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담정 그룹의 문학적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4) 박희병,『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박희병,『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전과 소설의 장르적 성격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조선 후기 전 가운데 대표적 작품을 자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전의 변모 양상을 살피는 가운데 김려와 이옥의 몇몇 작품들이 자세하게 분석되었다. 아울러 '담정그룹'이라 불리는 李安中(1752-1791)의 전 작품들 역시 깊이 있는 고찰이 이루어졌다).

5) 김려의 경우 이경수,「金鑣의 生涯와「丹良稗史」의 文學的 性格」,『국어국문학』92, 국어국문학회, 1984; 정병호,「김려의 전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9; 허준구,「"丹良稗史"의 야사적 성격과 그 의미」,『泰東古典硏究』14,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997; 이소라,「김려의 傳 연구: 〈琉球世子外傳〉, 〈韓淑媛傳〉, 〈蔣生傳〉을 중심으로」,『태릉어문연구』8, 서울여대, 1999; 홍진옥,「김려의『단량패사』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4 참조.
김조순의 경우 이창혁,「풍고 김조순의 전 문학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4; 김경희,「「五臺劍俠傳」에 나타난 김조순의 문제의식 고찰」,『동방학』34,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6 참조.
이옥의 경우 임유경,「이옥의 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0; 임정현,「이옥 전 작품의 양식적 특성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0; 구송이,「〈李泓傳〉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0; 정인혁,「「申兵使傳」의 서사적 갈등 구조 연구,『어문연구』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정환국,「이옥의 인간학—傳을 대상으로」,『한국한문학연구』52, 한국한문학회, 2013; 안세현,「이옥의「각로선생전」: 노쇠한 신체의 발견과 자기 서사」,『한문학논집』45, 근역한문학회, 2016 참조.

6) 김동욱,「〈유구국세자〉이야기의 유변양상」,『韓民族語文學』44, 한민족어문학회, 2004; 박준원,「朝鮮後期 傳의 事實受容樣相—燕巖·文無子·薝庭의 경우를 중심으로」,『韓國漢文學硏究』12, 한국한문학회, 1989; 박혜숙,「俠傳의 초기적 형태로서의 '蔣生傳' 연구」,『어문논집』60, 민족어문학회, 2009; 윤정안,「허균과 김려의「장생전」비교 연구」,『전농어문연구』19,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2007; 이지양,「이옥과 풍몽룡의 산문에서 통속성과 진정의 관계—여성의 열절을 소재로 한 전을 중심으로」,『한국실학연구』16, 한국실학학회, 2008; 최준하,「韓國實學派「私傳」一考: 諷刺類「琉球王世子外傳」을 중심으로」,『우리말글』9, 우리말글학회, 1991.

아울러 본 연구의 시각과 관련하여 덧붙이고자 하는 점이 있다. 그간 김려와 이옥을 위시하여 이른바 '담정 그룹'의 문학을 두고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조선 후기의 새로운 문학적 흐름이라 일컬으면서, 그 새로움을 특히 '탈중세적' 혹은 '근대 지향적'이라 특징짓고자 하는 연구들이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시각의 연구들은 분명 담정 그룹의 위상을 높이고 조선 후기 문학사에서 그들의 위치를 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대(前代) 문학 및 동시대 문인들과의 연결성을 다소간 간과한 것은 물론 이들의 논법과 맞지 않은 작품이나 의미들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 본고의 목적은 『담정총서』 소재 전 작품들에서 보이는 특징적 면모를 살피고 담정 그룹의 문학적 경향을 살피는 데 있는바, 작품에 나타나는 작가의 사상이나 문학적 특징이 얼마만큼 중세를 벗어났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근대에 접근하였으며 근대의 요소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본고의 관심과는 거리가 있다.[7]

2. 『담정총서』 소재 전(傳)의 경향성

『담정총서』에 김려의 전은 『단량패사(丹良稗史)』에 8편,[8] 김조순의 전은 『고향옥소사(古香屋小史)』에 6편,[9] 김선의 전은 『견월원별고(見月園別稿)에 1편, 이옥의 전은 『문무자문초(文無子文鈔)』·『매화외사』·『화석자문초』·『도화유수관소고』에 23편[10]이 실려 있어 도합 38편이다. 여기에서는 주제별로 작품을 유형화한 뒤 작가 의식 및 서술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7) 이옥의 傳을 인간학의 측면에서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이옥의 글쓰기를 일탈과 실험의 차원이거나 탈중심적 혹은 탈중세적 글쓰기로 규정해왔던 기존의 논의는 작품의 혁신적 면모를 극단적으로 몰아감으로써 '구별 짓기'에 다급했던 결과가 아닌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정환국, 앞의 글, 256-257면, 주38).

8) 『단량패사』에 실려 있지 않은 작품으로서 김려의 사후 후손들이 별도로 수습한 「金舜弼傳」이 있다.

9) 『풍고집』 권4에 4편의 전이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 「李彦瑱傳」은 『담정총서』에 중복 수록되어 있다.

10) 논자에 따라 「馬湘蘭傳補遺」를 제외하기도 하여 22편으로 보기도 한다(김균태, 『이옥의 문학이론과 작품세계의 연구』, 창학사, 1991). 아울러 「沈生傳」의 경우 傳奇小說에 속하는 작품이기에 제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 작품이 남녀의 애정문제를 다룬 점, 편지를 활용해 인물 심리를 밝힌 점, 애정갈등과 관련해 비극적 정조가 작품을 지배하는 점에서 전기소설에 가깝다고 보았다(박희병, 앞의 책, 1993, 168면).

1) 유교적 작품의 경우: 개성적 인물 창출과 새로운 담론 형성

『담정총서』에서 양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작품 유형은 충효열의 유교적 덕목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하층 신분의 인물들을 조명한 것이다. 전(傳)은 후대에 전해질 만한 인간적 미덕이나 품성을 지닌 인물의 면모를 다양한 예화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표창하는 것을 중요한 장르적 특성으로 갖는다.[11] 또한 전통 시기에는 충효열의 유교적 덕목을 실현하는 것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여겼던바, 이러한 인물들을 선양하는 작품이 적극적으로 창작되었다. 남성 인물의 '충'을 부각한 김려의 「포수이사룡전(砲手李士龍傳)」, 이옥의 「차최이의사전(車崔二義士傳)」, 「문묘이의복전(文廟二義僕傳)」, 김선의 「초주절의전(楚州節義傳)」(김국관의 경우), 여성의 '효'와 '열'을 부각한 김려의 「한숙원전(韓淑媛傳)」, 이옥의 「생열녀전(生烈女傳)」, 「열녀이씨전(烈女李氏傳)」, 「수칙전(守則傳)」, 「협효부전(峽孝婦傳)」, 「상랑전(尙娘傳)」, 김선의 「초주절의전」(하층 여성 인물들) 역시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담정 그룹이 유교적 이념을 충실히 실천한 인물들을 선양하는 데 적극적이었다는 점은 당대의 억압적이고 교조적인 사회적 분위기나 정치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문학 세계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한 기존 논의들과는 상충되는 면모로 읽힌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작품을 적지 않게 창작한 것을 담정 그룹 역시 전근대의 이념에 충실하였다고 이해해야 하는가. 이러한 유형의 작품을 면밀하게 읽어내는 것은 담정 그룹의 문학 경향을 살피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선 자신의 생을 바쳐 유교적 의리를 실현한 이들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정 그룹을 '반봉건적', '탈유교성' 등 시대를 초월하는 혁신적 면모를 보여주었다고만 단언하기는 힘들 듯하다. 이들 역시 당대의 사회적 질서와 도덕적 가치를 체득하고 있었으며, 유자(儒者)로서의 자의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대의 유교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유교적 덕목을 고취하는 내용의 인물전을 창작했다 하더라도 이들의 작품은

11) 박희병, 앞의 책, 1993, 27면.

기존의 작품들과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여준다.

우선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행위에 구체성을 더함으로써 입전 인물을 하나의 개성적 인물로 창출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포수이사룡전」에서 김려는 이사룡이 청병(淸兵)으로서 명(明)과의 전투를 떠나기 전 가족들과 헤어지는 장면을 삽입하고 "내가 살아서 돌아오거든 어머니께서는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은 나를 남편 여기지 마시오."[12]라는 입전 인물의 말을 넣었다. 이는 이사룡에 대해 황경원(黃景源)이나 송시열(宋時烈)이 남긴 글에는 없는 내용으로, 이사룡의 강개한 성격이 더욱 부각되는 동시에 작품 말미에서 그의 죽음이 비극적으로 그려지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아울러 김선의 「초주절의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타난다. 「초주절의전」에는 1617년에 금(金)을 공격하는 명(明)의 원병(援兵)으로 나선 무인(武人) 김국관(金國寬)이 나오는데, 그가 전장으로 떠날 당시 임신 중인 아내와 작별하며 "살면 응당 다시 돌아올 테지만, 죽으면 응당 긴 이별이 될 것이오. 그래도 사내아이를 낳으면 제사를 지낼 적에 시동(尸童)이 있게 되니 다행이지."[13]라고 말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이 부분 역시 김국관의 인물됨을 매우 압축적이고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옥의 경우 「차최이의사전」에서는 두 입전 인물의 대화를 길게 서술하여 병자호란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거나 "장한 기개는 하늘에 연하여 쌓이고, 지극한 충의는 해를 꿰뚫어 밝았네. 사나이 한 움큼의 눈물 흘리는 것, 이번 걸음 때문만은 아니라오(壯氣連天菀, 精忠貫日明. 男兒一掬淚, 不獨爲今行)."라는 한시를 인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전인물의 내면을 보여주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열녀전에 속하는 작품들에서도 확인된다. 이 가운데 이옥의 「수칙전」과 같은 경우 이건창(李建昌)과 성해응(成海應) 또한 동일 인물을 입전한 작품을 남기고 있어 서술상의 특징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수칙(李守則)은 장헌세자(1736-1762)를 모신 궁녀로, 그의 사후 궁을

12) 김려, 「砲手李士龍傳」, 『담정총서』 권10, 『丹良稗史』, "當士龍之西去也, 訣老母及妻曰: "吾生而歸者, 母無以爲子, 妻無以爲夫." 嗚乎, 亦壯矣哉!""

13) 김선, 「楚州節義傳」, 『담정총서』 권13, 『見月園別稿』, "己未正月, 調大司馬姜弘立等赴援, 國寬輒忼慨, 請從軍, 時妻李氏適懷妊, 將行忼慨謂李曰: "生當復歸, 死當長別. 但應生男 蘋藻有尸, 幸爾.""

떠나 30여 년의 세월을 칩거하여 결국 수칙의 관직을 받은 인물이다. 이건창과 성해응의 작품은 짧은 편폭에 이씨의 열절(烈節) 행위를 서술하고 이를 찬탄하는 논평을 압축적으로 남겨 놓고 있어 전통적인 열녀전의 작법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옥의 작품은 열녀로서의 삶을 응당 받아들인 '이상적인 여성상'을 부각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삶에 내재한 '슬픔을 가진 사람'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4]

다음으로 입전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행적부에서 허구적 장면을 삽입하여 서사의 흥미를 고조시키거나 유기적인 구성에 힘을 쏟는 등 문학적 역량을 한껏 드러낸 것과 달리, 논평부에서는 당대 사회에서 당연시되어 온 질서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거나 부정적 행위를 보이는 대상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는 이중적 구조를 보여준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이 점이 입전 인물이 얼마만큼 어려운 결행을 통해 이상적인 가치를 실현하였는지에 집중하였던 이전 시기의 작품들과는 다르다. 논평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이때를 당하여 우리나라의 선비들은 조정에서 고담을 하고, 앉아서 나라의 정권을 잡은 자들은 힐끔 보고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거늘, 여항의 필부만이 의리를 세워 스스로 일어나니 어찌 훌륭하지 않겠는가![15]

—「포수이사룡전」 서두 논평

2 아! 사대부들이 평소에 의리를 담론하고 기절을 숭상하지만 사룡과 비교하면 일찍이 벌레만도 못한데, 난에 임해 급박하고 어지러워 신의를 잃고 의리를 잊으면서도 웃으며 부끄러움이 없는 자에 이르러서는 사룡과 비교함에 또 어떠한가?[16]

—「포수이사룡전」 말미 논평

---

14) 이에 대해서는 김유미, 「열녀전 서술 방식 일고: 〈수칙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에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15) 김려, 「砲手李士龍傳」, 『담정총서』 권10, 『丹良稗史』, "當是時, 東方之士高談廟廟, 坐執國柄者眄然不以爲恠也, 獨閭巷之匹夫, 抗義自立, 豈不偉哉!"

16) 같은 글, "嗚乎! 士大夫平居, 談義理尙氣節. 其視士龍, 曾蟲蟻之不若, 而及夫臨難劻惑, 失信忘義, 啞然無耻者, 視士龍又何如哉!"

3 우리나라가 정묘, 병자년의 일을 당할 무렵 사대부들이 청담(淸談)으로 서로 고상한 척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그러나 한 사람의 장경(章京)을 포박하여 주어도 반드시 팔뚝이 떨려 칼을 휘두르지 못할 것이니, 그 어디에 쓸 데가 있겠는가? 차예량·최효일 등 여러 의사에서는 그 숭고한 의가 가을 서리 빛과 다툴 만할 뿐이 아니다.17)

—「차최이의사전」 말미 논평

4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재상으로 종묘의 신주를 받들어 피난 가던 자 중에 죄가 있는 자가 많았다. 그러한즉 신국·잠미와 같은 사람은 비록 재상보다 훌륭하다고 말해도 또한 지나치지 않다. 아! 선비 출신도 오히려 어려운 일이거늘 하물며 종복임에랴! (…) 아! 그 태어남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 죽음은 또한 재상보다도 훨씬 영광되도다.18)

—「문묘이의복전」 말미 논평

위의 논평들에는 모두 입전 인물이 보여준 용감하고 의로운 행위를 기리는 데, 위급한 때에 자신의 안위만을 보전하는 지배층의 상반된 행태와 대비하여 서술하는 수법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하층 신분, 즉 역사에서 잊힌 다양한 인물들을 역사의 장으로 호명함으로써 이들의 모범적 행실과 인간적 미덕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거니와, 한편으로는 당대 지배층의 허상과 부정을 폭로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시정(市井)에서 찾는 이른바 '예실구야(禮失求野)'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에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인물일수록, 그리고 그의 행위가 비범하고 극적일수록 지배층의 허위 의식과 부정의 행태가 더욱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담정총서』에서 충을 실천한 남성 인물들은 모두 중국의 명(明)나라와 청(淸)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격변기에 명에 대한 의리를 앞세워 자신을 희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담정 그룹의 문인들이 공통적인 시간적

17) 이옥, 「車崔二義士傳」, 『담정총서』 권21, 『梅花外史』, "國家當丁丙間, 士大夫莫不以淸談相高. (…) 縛一章京以與之, 必腕顫不敢刃, 顧何所用哉? 至若車崔諸義士, 非徒其高義可以與秋色爭." 번역은 이옥, 『완역 이옥전집』,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휴머니스트, 2009, 307-308면을 참조하여 필자가 다소 윤색하였다. 이하 이옥의 작품 번역 모두 해당 책을 참조하였다.

18) 이옥, 「文廟二義僕傳」, 『담정총서』 권21, 『梅花外史』, "壬辰丙子之難, 宰相之奉廟社主以行者, 多有罪焉. 然則若信國潛美者, 雖謂之賢於宰相, 亦不溢矣. (…) 嗟乎! 其生也, 雖僕, 其死也, 亦榮於宰相, 遠矣."

배경을 택한 데에는 당시가 이념과 현실의 사이에서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여 인간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역사적 시기였던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유교적 덕목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할 지배층의 허상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이를 보건대 담정 그룹은 유교적 이념 자체를 긍정 혹은 부정했다기보다는 그저 명분만 부르짖으며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는 무능한 대상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특히 이와 같은 주제의 전을 지은 김려, 김선, 이옥의 경우 정치적 역학 관계의 작용으로 굴곡 있는 생애를 살았던바, 논평에서 보이는 강도 높은 수준의 비판과 날선 어조는 그들의 생애 경험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도 생각된다.

다음으로 당대에 암묵적으로 강요되던 행위에 대해 논평의 형식을 빌려 새로운 담론을 제기한 경우로는 대표적으로 이옥의 열녀전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이 아녀자로서 짊어진 본분과 이상적인 부덕(婦德)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강했다. 그런데 이옥은 전통적인 열녀관과는 다소 다른 논의를 개진하는데, 「생열녀전」에 남긴 다음의 논평을 통해 볼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여자는 정절을 중히 여기고 음란하지 않아서, 사족의 딸이 초례(醮禮)만 치르고도 과부가 되어 다른 곳으로 시집가지 못하였다. 이 법이 풍속을 이루어 일반 서민 중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 역시 그렇게 하였다. 그러므로 온 나라 안의 젊은 아낙네로 소복을 입은 자들은 모두 옛날의 열녀이다. 여기에서 남편을 따라 죽은 뒤에야 정려를 하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열녀는 모두 죽은 사람들이고 살아서 훤히 정려문을 세운 경우는 없었는데, 내가 신씨에게서 지금 오직 그런 사실을 듣게 되었다. 아아! 시퍼런 칼날을 쥐고 자기 살점을 베어내는 것을 사람으로서 능히 해냈으니, 이는 한 번 죽는 것보다 매우 어려운 일이다.[19]

「생열녀전」은 중병이 든 남편을 위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구워 먹임으로써 정려된 이야기인데, 작품의 구성 방식에서 여타의 열녀전과는 다른 면모를

19) 이옥, 「生烈女傳」, 『담정총서』 권21, 『매화외사』, "朝鮮貞而不婬, 士族女, 雖醮而嫠, 不復適法, 仍成俗, 凡民之稍知恥者, 亦爾. 是遍國中, 紅顔而衣素者, 皆古烈女. 於是, 擇死於夫者而後, 乃旌之. 故朝鮮之烈女, 皆死, 未有生而煥棹楔者. 吾於申氏, 乃今獨聞之矣. 噫! 操白刃以自肉, 人而能之, 難於一死, 遠矣. 意其性多剛果."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형식적으로는 행적부와 작가의 논찬을 갖추고 있어 일반적인 전과 다름이 없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전 인물에 대한 소개와 행적에 대한 서술은 80여 자의 짧은 편폭에 압축되어 있고[20] 실은 이 뒤에 이어지는 작자 이옥의 논평에 작품의 주안이 놓여 있는 것이다. 논평의 내용은 남편이 죽으면 곧바로 따라 죽는 순절(殉節)보다는 살아남아서 여성에게 주어진 유교적 덕목, 예컨대 신씨(申氏)와 같이 시부모에 대한 봉양을 극진히 행하는 것이 한 차원 높은 열행(烈行)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작가의 입전 의도는 작품의 편명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칭양하는 대상 인물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열녀신씨전(烈女申氏傳)」이라 하지 않고 집전식(集傳式)의 편명을 붙인 데서, 작가의 의도가 신씨라는 한 개인의 열행을 기록하여 전하기보다는 남편을 따라 죽는 당대의 열녀 풍습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보다는 목숨을 부지하여 다른 방식으로 열행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새로운 열녀 담론을 형성하는 데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이와 같은 생각은 「생열녀전」에서만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바, 「열녀이씨전」이나 「수칙전」의 논평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피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21]

열녀 담론은 매우 오래된 연원을 지니고 있는바, 기원전 중국에서부터 유교적 전통의 하나로서 존재해왔다. 열녀라는 존재는 '일부종사(一夫從事)' 혹은 '불경이부(不更二夫)'라는 이념을 '여성의 몸이라는 장(場)'에 체현한 '사적 현상이자 사회적 현상'이다.[22] 강력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가문 의식 때문이든,[23] 남성 지식인과 사회에 의해 정립된 이데올로기를 여성 스스로 내면화한

---

20) 앞의 글, "生烈女申氏, 貫平山, 龍仁人也. 字幼學鄭某, 未幾, 夫得惡瘡, 遍身爛且死. 烈女聞人肉可以蠶, 潛以刀刲其股, 燒進之, 瘡卽已, 股亦不甚創. 事聞, 旌其閭曰: '烈女幼學鄭某妻平山申氏之門'. 客有見於南部墨寺洞者."

21) 이옥, 「烈女李氏傳」, 『담정총서』 권19, 『문무자문초』, "噫! 自古, 烈女何限, 然皆倉卒, 或自刑以刀釵, 或雉經, 或七日餓, 或投水, 或竊飮酖藥. 李氏獨不之然而然, 豈不誠卓乎烈哉? 從義也, 守約信也, 死誠也. 微三者, 何以能此. 易曰'苦節', 金氏之婦, 其庶幾乎!"; 이옥, 「守則傳」, 『담정총서』 권21, 『매화외사』, "嗚呼! 人之於事, 生難死易, 倉卒之際, 一寸芒, 一杯(鹵+亢), 知有義, 不知有身. 凡有血性者, 皆可以辦一死. 以一日萬變之心, 不懼不悔, 毅然若山岳之插乎地, 而累十年如一, 是有生之年, 皆死之日, 其難豈死之比耶? 是故曰: '生難死易.' 生而久, 尤難也."

22) 김유진, 「조선후기 열녀전 읽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321면.

23) 홍인숙, 『열녀列女×烈女열녀』, 서해문집, 2019.

현상이든,[24] 아니면 열녀가 되고자 여성이 주체적으로 실천한 결과든[25] 조선 시대의 여성은 남편을 평생토록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당연한 도리요 이상적인 실천적 모범으로 간주되었다.[26] 이는 공식적으로 상층 여성에게뿐만 아니라 하층 여성에게도 암묵적으로 강요되었던 보이지 않는 책무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순적 족쇄이기도 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여성의 '당연한 죽음'에 대해 일부 선진적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표명하면서 열녀를 둘러싼 새로운 담론장이 형성된바, 여기에는 이옥을 비롯하여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등 조선 후기의 문학장에 선진적 물음들을 던져왔던 지식인들이 존재한다.[27] 이 가운데 이옥의 논의는 사열녀와 생열녀의 행위에 경중(輕重)으로 우위를 구별함으로써 '남편을 잃은 여성의 삶' 역시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또한 그 삶 속에서 여성으로서 겪었을 '감정'에도 섬세하게 마음을 쓰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차별의 시선에 대해 가차 없이 비판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열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당대의 여성을 주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유교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강요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사상적 한계로서 지적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는 이옥이 본래 지니고 있던 인간의 '정(情)'에 대한 관념이 열녀 담론에까지 확장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이옥이 인간의 '진정(眞情)', 즉 본성에 바탕한 자연스러운 마음 혹은 감정들을 중요시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28] 이는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의 자연스런

24)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25) 소진형, 「열녀:조선 후기 성리학의 대중화와 여성의 욕망」, 『한국정치학회보』 54, 한국정치학회, 2020.
26) 이처럼 여성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여성의 주체적 실천 결과이기보다는 남성(아버지, 남편, 남자형제)이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여성의 목숨을 통제하는 이른바 '명예살인'의 한 형태로 바라보기도 한다(송지혜, 「구조적 명예살인으로서의 조선 후기 열녀 현상」, 『제4회 대학원생 인권 논문상 발표회 발표집』, 서울대 인권센터, 2021, 65면).
27) 홍인숙, 앞의 책, 258-281면에 조선 후기 열 비판 담론이 정리되어 있다. 저자가 찾은 자료로는 비판 담론을 행한 지식인이 박지원, 이옥, 정약용, 김택영, 김윤식 등 5인에 불과하다고 한다.
28) 정환국, 「이옥에게 있어서 '여성'—여성 소재 글쓰기의 성격에 대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257-258면.

이치를 따른 인간의 감정 역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언(俚諺)』에서 전대의 문학 작품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여성의 원망의 감정 역시 가감없이 표현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였던 이옥의 태도를 고려하면, 열녀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한순간에 목숨을 끊은 사열녀(死烈女)보다는 자신의 생애를 관통하여 '감정의 절제'를 행하는 생열녀(生烈女)를 더욱 높이 여긴 점은 응당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2) 기인·이인전의 경우: 호기(好奇) 취향과 회재불우(懷才不遇)의 의식

다음으로 『담정총서』에 실린 전들 가운데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서 기인·이인을 다룬 작품들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김려의 「고수재전(賈秀才傳)」·「삭낭자전(索囊子傳)」·「장생전(蔣生傳)」, 이옥의 「부목한전(浮穆漢傳)」이 있고 김선 역시 현재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 계열의 작품을 창작했던 것으로 추정되며,[29] 특히 김조순은 「이경명선생전(李景明先生傳)」, 「여부자전(呂夫子傳)」, 「오대검협전(五臺劍俠傳)」, 「신생전(申生傳)」 등 대부분 이인에 관한 전을 창작하였음이 확인된다. 무엇보다 담정 그룹의 작품은 17세기 허균(許筠)으로부터 이어져 온 이인전사(異人傳史)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다.[30]

이 가운데 김려와 김조순의 작품은 명말청초(明末淸初)에 창작되어 조선에서도 상당히 유행했던 장조(張潮)의 『우초신지(虞楚新志)』를 강하게 의식하고 창작되었다는 점을 먼저 유념할 필요가 있는바, 『우초신지』는 당시 명말청초 문인들의 글 가운데 신기(神奇)하고 괴이(怪異)한 글들을 엮은 문헌이다.[31] 이로

29) 김선이 지었다는 「평량자전」 역시 이 계열에 속하는 작품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0) 박희병, 「異人說話와 神仙傳(Ⅱ)」, 『한국학보』 15, 일지사, 1989, 77-80면. 다만 해당 논의에서 김조순의 작품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31) 장조, 『우초신지』, 「凡例」, "鄙人性好幽奇, 衷多感憤. 故神仙英傑, 寓意四懷, 外史奇文, 寫心一啓."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편찬의 기본 방향은 신이함, 기이함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초신지』가 奇文을 하나의 문학 스타일로 확립했다고 평가한 경우도 있다(심경호,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 일지사, 1999, 78면).

볼 때 김려와 김조순의 작품 역시 기이한 일이나 인물에 대한 호기심이 일차적인 창작 동기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김조순의 작품은 전기 소설적 수법으로 이인의 모습을 매우 신비롭고 흥미로운 존재로 그려 놓고 있어 호기 취향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대검협전」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산에서 길을 잃은 한 서생(徐生)이 우연히 묵게 된 산속 초가집의 주인이 벗을 죽인 이에게 복수하기 위해 검협이 된 자임을 알게 된 과정을 그린 것으로, 장면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밀도 높은 서사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서생이 초가집 주인이 검객임을 알아가는 과정이 대표적인 장면이라 할 것인데, 다음의 인용문에 이를 제시한다.

> 생이 오랫동안 깊이 잠들었다가 우연히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다 깨어났는데, 누워서 힐끗 보니 청년이 등을 진 채 여전히 바르게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문밖에서 우수수 나뭇잎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가-인용자] 안으로 홀연히 이르렀다. 소년이 "왔는가?"하고 묻자, 문밖에서 "내가 왔소."라고 대답한 뒤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멈칫하며 말하였다.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요?" 청년이 "걱정할 것 없소. 산행 중에 길을 잃은 사람일 뿐이라네."라고 대답하고는 생을 가볍게 흔들면서 연이어 "잠들었소? 잠들었소?" 하였다. 생은 놀랐으나 거짓으로 대답하지 않고 몸을 뒤척이며 쿨쿨 잠에 취한 듯 행동했다. 청년이 "깊이 잠들었소."라고 하자, 그 사람이 즉시 들어왔다. 생이 실눈을 뜨고 슬쩍 살펴보니, 또 키가 크고 체구가 좋은 청년이 등불 그림자 아래 비스듬히 서서 청년에게 "지금 가야하오."라고 말하였다.
>
> 청년이 즉시 일어나 규장에 들어가 한 작은 대바구니를 꺼내와 떨구니, 두 개의 비수와 하나의 복면이 있었다. 이에 두 사람이 본래 입던 옷을 벗고 보자기 안의 물건을 꺼내 한 사람은 청색, 한 사람은 황색 옷으로 갈아입었다. 생이 매우 놀라, 더욱 죽은 사람처럼 몸을 움츠렸다. 두 사람이 차려입기를 마친 후 문을 나서니, 간 곳을 알 수가 없었다. 생이 이에 가만히 일어나 시렁 위의 책을 꺼내 보니 검서가 많았다. 이에 그가 검협임을 알게 되었다.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몸을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였다.[32]

---

32) 김조순, 「五臺劍俠傳」, 『담정총서』 권12, 『古香屋小史』, "生熟寐良久, 偶欠伸而寤, 卧睨少年背猶端坐不動. 忽聞戶外有聲颯然如墜葉, 內忽低. 問曰: "來否?" 戶外應曰: "我來也." 啓戶欲入, 躇曰: "卧者爲誰?" 少年曰: "無傷. 山行失路者耳." 仍微搖生, 連呼曰: "睡未睡未?" 生訝之, 佯不應, 轉齁齁若醉. 少年曰: "睡深矣." 其人卽入. 生從睫間窃瞰之, 又一少年長身偉幹, 側立燈影下, 謂少年曰: "可去也." 少年卽起入閨藏,

인용문은 객의 시점에서 서사가 진행되면서 청년에 대한 궁금증이 점차 증폭되다가 마침내 검협임이 밝혀지는, 팽팽한 긴장감이 넘쳐흐르는 장면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는 점,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서사가 진행되는 점, 보조적 인물인 객의 내면 심리(호기심→의구심→놀라움)까지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 등에서 전통적인 전의 문법을 벗어나 한 편의 단형 서사물에 근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이 장면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초신지』의 「팽망조전(彭望祖傳)」에서 평범한 인물인 줄 알았던 팽망조가 실은 도술을 부리는 이인이라는 사실이 그의 시중을 들던 동자(童子)에 의해 밝혀지는 장면과 매우 유사한바,[33] 명청 패사소품과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이후의 서사는 검협과 객의 대화를 통해 절친한 벗에 대한 복수를 위해 검협이 된 이유가 밝혀지고, 객의 요청으로 검협이 검술을 보여준 뒤 다음 날 검협과 헤어진 객이 영남의 한 고을에 가서 검협의 복수가 실제 일어난 일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작품에는 일반적으로 전에 나타나는 입전 인물에 대한 현양이나 교훈적인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검협의 개인사와 검술을 보여주는 데 중점이 있다. 말미의 논평부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흉악한 일이므로 검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일인데 이를 보면 검협은 도를 아는 자였을 것[34]이라는 입전 인물에 대한 칭양이 단편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자객열전(刺客列傳)」이나 당(唐)나라의 전기소설 등에 대한 관심 역시 언급하고 있어 작가의 창작 의도가 입전 인물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사람들을 교계(敎誡)하려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호기 취향에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김려 역시 입전 인물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일화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구성이나 흥미를 제고하는 요소를 곳곳에서 마련해 놓고 있는 점에서는 김조순의 작품과 공유하는 측면이 있다. 「고수재전」, 「삭낭자전」, 「장생전」의

出一小籠抖之, 有二匕首, 一帕裹. 於是, 二人脫其故服, 取帕中物, 着之一靑一黃. 生大怖駭, 愈縮如死者. 二人裝畢出門, 不知所之. 生乃潛起, 抽架上編, 多劒書, 知其爲劒俠也. 復就寢, 轉輾不能寐."

33) 홍진옥, 앞의 글, 2014, 107면.

34) 「오대검협전」, "五臺劒俠者, 余不知其何人, 然視乎其術, 盖亦有道者也. 其言曰: '術不能勝天. 必假天.' 夫殺人, 凶事也, 而必假天, 不知天者, 殺人亦不可得爲也."

행적부를 살펴보면 입전 인물의 기이한 행적을 보여주는 일화를 삽화식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대화를 삽입하거나 장면 묘사를 길게 확대하는 등 작가의 문학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바, 기인・기사(奇事)를 생동하게 묘사한 소품문이라는 해석은 일견 타당하다.[35]

다만 김려의 작품에는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한, 결코 역사에서 찬란하게 조명될 수 없는 인물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의 전에는 뛰어난 재능을 지녔음에도 신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재능을 못다 이룬 인물이나 아무런 힘이 없어 부당한 그리고 불가피한 죽음을 당하고마는 인물들이 주로 입전되어 있다. 기인・이인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논평부의 서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이상도 하다, 고수재의 사람됨이여! 뛰어난 재주를 품고 훌륭한 뜻을 지니고서 어찌하여 미친 척 멋대로 행동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얼이 빠져 자초지종을 알 수 없게 하였는가? 아마도 옛날의 이른바 은군자의 부류가 아니었겠는가?[36]

—「삭낭자전」

2 장생은 특별한 재주를 지녔으나 인륜상의 변고를 만난 까닭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 방탕하게 하여 그의 슬픔과 근심과 울화를 풀어낸 것일 뿐이다. 그러나 장생은 아버지를 진실로 바루지 못하고 가정도 이루지 못한 채 짐승들과 더불어 무리를 이루고 지냈으니 칭찬할 것은 못 된다.[37]

—「장생전」

해당 인용문을 살펴보면 김려의 경우 입전 인물의 기이한 행위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사람됨이나 처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수재와 장생 모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물인데 어떤 연유로 인해 이와 같은 기이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볼 때 김려의 작품에서 '기이함'은

35) 이가원, 『이가원전집』 19, 정음사, 1986, 350면.

36) 김려, 「고수재전」, "異矣夫, 夫秀才之爲人也! 抱奇偉之才, 負卓犖之志, 何爲是猖狂自恣, 使人惘然莫知其端倪也? 殆古所謂隱君子流耶?"

37) 김려, 「장생전」, "盖生抱奇才, 遭人倫之變, 故爲自苦自放, 以解其悲愁鬱結而已也. 然生不能誠格于父, 不能成家道, 頹然與禽獸同羣, 無足稱也. 然聞其事, 未及見其人也, 及讀犀園「平凉子傳」, 益瞿然矣. 夫世固有若蔣生者."

입전 인물을 인상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주요 소재로서 활용되는 차원이지 이것을 작품의 주제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김려의 기인・이인전에서의 일화의 배치와 극적인 서술은 뛰어난 재주를 지녔음에도 세상과 조화되지 못하는 입전 인물들이 기이한 행적을 보임으로써 사회에 대항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수재를 연암의 「마장전(馬駔傳)」, 「민옹전(閔翁傳)」, 「김신선전(金神仙傳)」의 입전 인물들과 동궤(同軌)의 인물이라 지적한 것은 「고수재전」에 드러난 작가 의식을 예리하게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38] 「마장전」, 「민옹전」, 「김신선전」은 양반 사회에 타락한 우정이 이름 없는 서민들에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들과의 교우를 통해 참다운 우정의 실현을 갈망한 작품들이다.[39] 이들 작품에는 윤리적 미덕을 견지하여 건실하게 살아가지만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들이 등장한다. 특히 「김신선전」의 김신선은 자신의 울울한 뜻을 펴지 못해 방달한 삶을 사는 인물로서, 고수재와 흡사한 면모를 보여준다.

요컨대 김려의 작품에 입전된 기인이나 이인은 '회재불우(懷才不遇)'에 속하는 한 유형으로서 방달한 삶을 사는 은자(隱者)로 표상되며, 이러한 인물군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사회에 대한 고발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옥의 작품 역시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목한전」에서 이옥은 부목한과 수좌(首座)와의 대화를 통해 수좌와 부목한이 오랜 세월 도를 닦은 이인임을 드러내는 구성을 취하였는데, 논평부에서는 부목한에 대한 서술보다는 이인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며 이인에 대해 긍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불우한 처지에 있었던 작가의 현실 도피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40] 요컨대 이옥의 경우 이인을 긍정한 것은 김조순과 같지만 그것이 호기적 취향으로만 흐르지 않았고, 김려처럼 현실에 대한 부정과 반발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

38) 이우성・임형택, 『이조한문단편집』中, 일조각, 1990, 115면.
39) 김명호, 「연암 문학과 『사기』」, 『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40) 박희병, 앞의 글, 1989, 80면.

으로는 드러내지 않은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생동하는 당대 문화와 인간 군상의 형상화

모든 문학 작품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혹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창작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전대와는 다른 괄목할 만한 변화들이 이루어졌던 조선 후기의 사회, 그리고 저마다의 개성을 영롱하게 드러내며 갖가지 색채로 사회를 구성했던 인간 군상을 문학 작품에 담아낸 경우로는 담정 그룹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사회 전반의 문화와 예술에 남다른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사회의 중심부보다는 주변부에 속한 인물들의 미덕을 긍정하는 따스한 마음을 소유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대상들을 심상하게 보아 넘기지 않고 작품에 담아내는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41]

특히 김려와 이옥의 경우 결코 평탄치 않은 굴곡진 삶을 살았던바, 북쪽의 변방 지역이나 바닷가, 혹은 매우 낯선 문화적 풍경들이 펼쳐졌던 지방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그곳에서의 풍물이나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작품에 담아내었다. 예컨대 부령에서 인연을 맺은 소중한 사람들이나 그리운 풍경을 담아낸 『사유악부(思牖樂府)』, 진해에서 몸소 관찰한 어류를 정리한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 봉성 지역을 풍경화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그려낸 『봉성문여(鳳城文餘)』 등은 모두 일상에서의 경험이나 이를 통해 느껴지는 감정을 진솔하게 작품화하는 창작 경향을 증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傳)의 경우 사회를 구성하는 각양각색의 사람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더더욱 시대의 상이나 분위기가 필연적으로 작품 속에 반영되는데, 『담정총서』 소재 작품에서는 「장봉사전(蔣奉事傳)」, 「성진사전(成進士傳)」, 「유광억전(柳光億傳)」, 「이홍전(李泓傳)」, 「최생원전(崔生員傳)」 등 이옥의 전이 그러한 면모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42]

---

41) 조선 후기의 특징적 문학 경향으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회지의 문화를 그려낸 것을 꼽을 수 있는데, 조선시대 문학에서 도시성의 문제가 담정 그룹에서 본격적으로 대두한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안대회, 「담정그룹 문인과 정조 순조 연간 한양의 도회지 문학」, 『제3회 국립한국문학관 정기학술대회(담정, 김려 문학과 그의 시대) 발표자료집』, 2022, 1-11면].

먼저 「장봉사전」에는 서울의 사대부집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대접받으며 살아가는 맹인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작품이 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는 작품의 첫 문장인 '장 봉사라는 자는 서울 사람이다(蔣奉事者, 京師人也).'가 거의 유일하다. 이후의 내용은 단소한 편폭의 잡록(雜錄)이라 해도 무방한데, 장 봉사와 혹자의 문답을 통해 풍속은 점차 사치스러워지는데 반대로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이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물론 마지막에 혹자가 "세상은 지금 당신을 먹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그중에 깊은 생각이 있군요. 아! 이런 원칙에서 점을 친다면 누가 감히 수긍하지 않겠소?"[43]라고 한 대답에서, 실은 장 봉사가 단순히 눈이 멀어 밥을 빌어먹고 사는 인물이 아닌 이를 통해 풍속을 두루 살피는 비범한 인물임을 드러낸 이인전 부류의 작품으로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주안은 장 봉사가 보여주는 행실을 조명하는 것보다는 그의 입을 빌려 당대의 사치스러운 풍속을 비판하는 것에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이처럼 날로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백성으로 인해 결국 간교함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성진사전」이다. 이 작품은 굶어 죽은 아이를 이용하여 큰 재물을 편취하려 했던 가난한 부부를 포용함으로써 계략에 속지 않은 성 진사의 현명함을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작가가 의도한 것은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는 백성들이 여전히 존재했고,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자구책이 결국은 부정하고 교묘한 술수의 횡행으로 이어지게 된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모순을 폭로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장봉사전」이나 「성진사전」과는 달리 부정한 술수가 만연해 있는 비극적인 사회상을, 바로 속임수를 행하는 악인 인물을 중심으로 드러낸 작품이 바로 「이홍전」과 「유광억전」이다. 유광억은 글재주로 과거 답안을 대작(代作)하여 이익을 챙기다가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친 인물이고, 이홍은 갖가지

42) 김려의 경우 8편의 전 가운데 7편이 역사 기록을 재구성한 것이고, 김조순의 경우는 기인과 이인을 입전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43) 이옥, 「蔣奉事傳」, 『담정총서』 권19, 『文無子文鈔』, "世方疑君爲飮食之人, 曾有術於其間矣. 噫! 執此以卜, 其誰敢不伏?"

교묘한 술수로 평생 남 속이는 일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귀양을 가게 된 인물이다. 두 작품은 모두 입전 인물이 어떤 방법으로 남을 속였는지 매우 자세하게 그려 보인 일화를 열거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들의 속임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으로서 「유광억전」에는 당시 과거 답안의 매문(賣文) 행위와 과거 시험장에서의 부정 행위가 성행하여 결과적으로는 지배층의 질서가 급격히 흔들리고 사회적 권위가 실추되었던 상황, 「이홍전」에는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경제가 크게 발달하고 이로써 이윤의 추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상황이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네 작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익[利]'과 '속임수[騙]'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교적 이념에서는 소인과의 대비 속에서 이익이 아닌 의리[義]를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으로서 군자를 지향한다. 이때의 이익이란 인격 수양에서 최우선으로 지양해야 할 인간 내면의 욕망을 가리키는 추상적 차원의 철학 개념에 가깝다. 그렇지만 이옥이 작품에서 일컫는 이익은 좁게는 물질적인 재화를, 넓게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소용되는 어떤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통시대의 '利'가 윤리적 혹은 도덕적 개념이었다면 조선 후기, 특히 시정 문화에서의 '利'는 이와는 반대된 물질적, 쾌락적 속성을 더 함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옥은 단순히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이익을 얻기 위한 욕구가 '기망(欺罔)'의 행위와 결부될 때가 문제적 상황이 된다. 「이홍전」에서 '예전 사람들은 소박하였는데, 요새 사람들은 기지(機智)를 숭상한다. 기지는 기교를 낳고, 기교는 간사(奸詐)를 낳으며, 간사는 속임수를 낳는다. 속임수가 횡행하면 세도가 날로 어지러워진다.'[44]라며 서두를 열고, 「유광억전」에서 '세상에 팔 수 없는 것이 없다. 몸을 팔아 남의 종이 되는 자도 있고, 미세한 터럭과 형체 없는 꿈까지도 모두 사고팔 수 있으나 아직 그 마음을 파는 자는 있지 않았다. 아마도 모든 사물은 다 팔 수 있지만, 마음은 팔 수 없어서인가? 유광억과 같은 자는 또한

44) 이옥, 「이홍전」, 『담정총서』 권24, 『桃花流水館小稿』, "古之人朴, 後人尙機. 機生巧, 巧生詐, 詐生騙, 騙生而世道, 亦難矣哉."

그 마음까지도 팔아버린 자인가?'[45]라는 의론으로 작품을 맺은 것은, 모두 속임수를 통해 이익을 얻는 시정의 수많은 인물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타락해버린 사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읽을 수 있다. 요컨대 물질적, 쾌락적 가치로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한 조선 후기 시정문화의 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기망 행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거듭 가하고 있는바, 결국 신뢰와 의리라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강조하는 윤리적 인간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당대의 사회 문화를 매우 실감나게 보여주는 작품 가운데 위의 작품군과 다른 유형으로 「정운창전(鄭運昌傳)」, 「가자송실솔전(歌者宋蟋蟀傳)」 등이 있다. 정운창은 당대에 바둑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송실솔은 가객(歌客)으로 명성이 있던 인물로, 이 두 작품은 모두 조선 후기의 예술과 문화적 취향을 반영하고 있는 예인전(藝人傳)에 속한다.

먼저 「정운창전」은 입전 인물이 대단한 실력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일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작가의 논평 역시 정운창의 바둑 솜씨는 인공(人工)이 아닌 천재(天才)에 속할 것이라는 짧은 언급만이 나타난다. 입전 인물의 선악을 판단하고 행위의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닌 기예가 얼마만큼 대단했는가를 오로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작품에는 전이 본래 지니고 있던 교훈성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다.

반면 김조순의 작품은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김조순의 「이생전(李生傳)」 역시 대단한 바둑 실력을 갖춘 이생(李生)이라는 인물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정운창전」과 달리 이생의 바둑 실력과 더불어 그가 당대 서울에서 바둑으로 큰 명성을 날린 변흥평(卞興平)과 문경지교(刎頸之交)를 맺게 된 과정까지 담아낸 점이 다르다. 아울러 논평부에서도 작가는 이생이 뛰어난 바둑 실력을 얻기까지 얼마나 지난(至難)한 노력을 하였는지 '생에 대한 독실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생과 변흥평의 지극한 사귐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과 비교함으로써 신의를 잃어가는 세태와 벗의 도리에

45) 이옥, 「유광억전」, 『담정총서』 권21, 『梅花外史』, "天下無不賣物, 有賣身爲人奴, 至毛之微夢之無形, 皆有買賣, 而亦未有賣其心者, 豈物皆可賣, 而心不可賣耶? 若柳光億者, 其亦賣其心者耶?"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가자송실솔전」은 송실솔의 노래 실력이 얼만큼 뛰어났는지를 서술하는 것으로 작품을 시작하였지만, 이후에 입전 인물이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대부들과 격의 없이 어울릴 만큼 매력을 지닌 '입체적인 사람'으로 부각시켜 놓고 있는 점에서 「정운창전」과는 또 다른 서술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서평군(西平君)이라는 인물과 어울리는 장면이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솔이 부른 노래 가사를 직접 삽입하거나 서평군과 농담을 주고받는 대화 장면은 그녀를 매우 인간미 넘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부각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서평군을 비롯하여 젊은 시절 함께 어울리던 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실솔만이 혼자 남아 이들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장면으로 작품을 마무리 한 것은 입전 인물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조명하였던 이전 시기의 전과 달리 당대를 살아가던 한 예인의 감정과 내면을 더욱 섬세하게 바라보는 작가의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3. 심층적 인간 이해와 시대적 고민의 표출: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담정총서』 소재 전(傳) 작품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유형화한 뒤 이를 작가 의식 및 서술방식을 중심으로 문학적 특징을 살폈다. 『담정총서』에서 중요한 비중을 지니는 유형은 크게 충효열의 전통적 유교 이념을 선양하는 작품군, 기인이나 이인의 행적을 다룬 작품군, 조선 후기의 문화와 당대의 생동하는 인간군상을 여실히 반영한 작품군으로 나눌 수 있다. 무엇보다 양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교적 지향의 작품군은 담정그룹이 탈중세적, 반봉건적 지향을 보인다는 기존 논의와의 연관성, 담정그룹의 문학 세계를 해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또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 유형에는 입전 인물, 작품 구성 및 서술 방식, 작가 의식 등이 매우 다채롭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일한 의미망 아래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정 그룹의 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학 경향을 읽어낼 수 있다.

첫 번째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사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다채로운 사회 변화로 인해 갖가지 변화상들이 나타나고,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출현하므로 이를 작품에 담아내었다는 것 자체를 그룹을 설명할 만한 문학적 특징으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인물의 행위를 부각시키는 전의 장르적 특성을 보았을 때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보인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그렇지만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어떤 유형의 작품에서든 담정 그룹이 그려내고자 했던 것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닌 바로 사람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충효열의 전통적 유교 덕목을 선양하는 작품에서 역시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그러한 이념과 사상을 체화하여 전근대의 이념에 부합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과 조건 속에서도 인간'성'을 어떻게 실현했는가, 그로 인해 어떻게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지를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것이었다. 기이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작품군에서도 그들이 어떤 연유로 세상을 저버린 방외인(方外人)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비중 있는 관심을 두었다는 점도 그렇거니와 조선 후기에 산생된 다양한 유형의 인물들, 예컨대 가객이나 바둑 고수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기예가 어떤 경지에 이르렀나 하는 점보다는 그들의 인간적 미덕과 내면의 감정을 좀 더 섬세하게 읽어내려 했다는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특히 김조순을 제외한 김려, 김선, 이옥 등 세 사람은 유자(儒者)로서의 자의식을 지니고 있었지만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바, 사회 개혁적 측면에서 혹은 정치적 입장에서 인물을 평가한 작품들과도 다르고, 여항 문인들처럼 자신들의 처지와 비슷한 인물들을 입전하여 그들을 통해 목소리를 낸 작품들과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당대 사회의 변화나 분위기를 기민하게 감지하여 섬세한 문체로 작품에 반영하거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감 없이 담아내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의 중심부에서 다소 소외된 삶을 살았던 김려와 이옥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컨대 조선 후기에 이르러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순탄치 않은 길을 택한 기인과 이인 부류의 삶을 조명한 작품

에서는 이와 같은 인물 부류를 산생시키는 비정상적 사회에 대한 고발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고, 충효열을 실천한 인물을 통해서는 고담(高談)과 준론(峻論)만을 일삼는 지배층의 허상을 통렬하게 비판하였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이옥의 경우 오래도록 사회적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열녀 담론을 비판하며 세상에 남은 자의 삶 역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를 개진하기도 하였다. 사회를 향한 이와 같은 논의는 당대 사회를 구성한 '사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분석을 정리하면 담정 그룹의 전(傳) 문학은 사회적으로 고착된, 혹은 관념화된 모든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관성적 목소리를 거부하고, 인간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심층적 이해 및 사회적 고민을 다각도로 담아냄으로써 조선 후기의 문화 지형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냈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자료

金 鑢 編,『潭庭叢書』, 국립한국문학관 소장, 학자원 영인본, 2014.
金 鑢,『潭庭遺藁』, 서울대 규장각 소장;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289.
金祖淳,『楓皐集』, 한국문집총간 289.
李建昌,『明美堂集』, 한국문집총간 349.
丁若鏞,『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

李 鈺,『完譯 李鈺全集』,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휴머니스트, 2009.
이우성・임형택,『이조한문단편집』中, 일조각, 1990.
『日省錄』(https://db.itkc.or.kr/dir/item?itemId=IT#/dir/list?itemId=IT&gubun=book)

2. 논저

강명관,『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구송이,「〈李泓傳〉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0.
김경희,「「五臺劍俠傳」에 나타난 김조순의 문제의식 고찰」,『동방학』 34,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6, 175-206면.
김균태,『이옥의 문학이론과 작품세계의 연구』, 창학사, 1991.
김동욱,「〈유구국세자〉이야기의 유변양상」,『韓民族語文學』 44, 한민족어문학회, 2004.
김명호,「신선전에 대하여」,『새터 姜漢永教授 古稀記念 韓國판소리・古典文學 硏究』, 아세아문화사, 1983, 657-669면.
_____,「연암 문학과 『사기』」,『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김영진,「金鑢의 編書 활동과 交遊에 관한 몇 가지 신자료」,『대동한문학』 47, 대동한문학회, 2016, 41-78면.
김유미,「열녀전 서술 방식 일고: 〈수칙전〉을 중심으로」,『한국고전연구』 3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115-139면.
김유진,「조선후기 열녀전 읽기」,『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303-337면.
박준원,「朝鮮後期 傳의 事實受容樣相—燕巖・文無子・潭庭의 경우를 중심으로」,『韓國漢文學硏究』 12, 한국한문학회, 1989, 65-80면.
_____,「『담정총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4.
박혜숙,「俠傳의 초기적 형태로서의 '蔣生傳' 연구」,『어문논집』 60, 민족어문학회, 2009, 5-35면.
박희병,「異人說話와 神仙傳(Ⅱ)」,『한국학보』 15, 일지사, 1989, 70-97면.
_____,『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_____,『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소진형,「열녀:조선 후기 성리학의 대중화와 여성의 욕망」,『한국정치학회보』 54, 한국정치학회, 2020, 29-48면.
송지혜,「구조적 명예살인으로서의 조선 후기 열녀 현상」,『제4회 대학원생 인권논문상 발표회 발표집』, 서울대 인권센터, 2021.

심경호,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 일지사, 1999.
안대회, 「담정그룹 문인과 정조 순조 연간 한양의 도회지 문학」, 『제3회 국립한국문학과 정기학술대회(담정, 김려 문학과 그의 시대) 발표집』, 2022.
안세현, 「이옥의 「각로선생전」: 노쇠한 신체의 발견과 자기 서사」, 『한문학논집』 45, 근역한문학회, 2016, 253-276면.
윤정안, 「허균과 김려의 「장생전」 비교 연구」, 『전농어문연구』 19,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2007, 41-68면.
이가원, 『이가원전집』19, 정음사, 1986.
이경수, 「金鑢의 生涯와 「丹良稗史」의 文學的 性格」, 『국어국문학』 92, 국어국문학회, 1984, 87-108면.
이소라, 「김려의 傳 연구:〈琉球世子外傳〉, 〈韓淑媛傳〉, 〈蔣生傳〉을 중심으로」, 『태릉어문연구』 8, 서울여대, 1999.
이지양, 「이옥과 풍몽룡의 산문에서 통속성과 진정의 관계-여성의 열절을 소재로 한 전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6, 한국실학학회, 2008, 93-128면.
이창혁, 「풍고 김조순의 전 문학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4.
임유경, 「이옥의 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0.
임정현, 「이옥 전 작품의 양식적 특성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0.
정병호, 「김려의 전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9.
정인혁, 「「申兵使傳」의 서사적 갈등 구조 연구, 『어문연구』 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177-199면.
정환국, 「이옥의 인간학—傳을 대상으로」, 『한국한문학연구』 52, 한국한문학회, 2013, 233-260면.
_____, 「이옥에게 있어서 '여성'—여성 소재 글쓰기의 성격에 대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251-281면.
최준하, 「韓國實學派「私傳」一考: 諷刺類「琉球王世子外傳」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9, 우리말글학회, 1991, 107-118면.
허준구, 「"丹良稗史"의 야사적 성격과 그 의미」, 『泰東古典硏究』 14,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997, 69-99면.
홍인숙, 『열녀列女×烈女열녀』, 서해문집, 2019..
홍진옥, 「김려의 『단량패사』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4.
_____, 「'琉球 세자 살해설'과 김려의 〈유구왕세자외전〉」, 『대동한문학』 47, 대동한문학회, 2016, 121-169면.
_____, 「담정 김려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1.

【Abstract】

Jeon (傳) in *Damjeongchongseo (潭庭叢書)*

Hong, Jin-ok*

This paper aims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Jeon(傳) of the *Damjeong Chongseo (潭庭叢書)*, which have been studied by each work or by writers, through a wider network of meanings, and to examine the literary trends of the "Damjeong Group". For this purpose, the entire work was categorized by subject, and then discussed, focusing on the writer's consciousness and narrative characteristics.

First, the works that shed light on the lower-class figures who actively practiced Confucian virtues in loyalty, filial piety, and chastity, show a different aspect from the existing works in that they created a personality rather than strengthening Confucian ideology and raise a new discourse in the commentary. Second, in the case of the works that featured between the strange person and hermit, Kim Jo-soon strongly reveals his taste for eccentricity and shows high narrative and interesting elements, while Kim Ryeo sees them as a hermit who lives a free life as a type of people who are talented but do not have the opportunity to show, and includes the intention of accusing society of such a group of characters. In the case of Lee Ok, a compromise appears showing aspects such as interest in hermit and denial and opposition to reality. Third, it is noteworthy of the work group that reflects the culture of the time and the lively human group. Here, the issues of "profit" and "deception" were mainly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customs of the time, emphasizing the natural values of trust and loyalty. In addition, the lives of newly produced figur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such as Go masters and singers were carefully highlighted.

This analysis means that the Jeon works in Damjeong Chongseo have created the cultural landscape of the late Joseon dynasty more diverse by rejecting inertial voices against all socially fixed or ideological ideologies and capturing detailed observations, in-depth understanding, and social concerns about humans.

Keywords: *Damjeongchongseo (潭庭叢書)*, Kim Ryeo (金鑢), Kim Sun (金鏞), Kim Jo-soon (金祖淳), Lee Ok (李鈺), Jeon (傳).

접수일: 2022.12.31. ‖ 심사일: 2023.01.09. ‖ 게재확정일: 2023.02.25.

* Lecture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